

기지개 컨 재킷, 겨울 벗고 봄을 입다

시선강타 아웃도어 봄 신상품

스트레치 소재로 활동적인 경량패딩 사무실에서 잘 어울리는 워밍 비즈룩 출퇴근·일상복 겸한 하이브리드형



살살 봄 냄새가 난다. 시인의 감성을 가진 봄 받은 사람이라면 봄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아웃도어 모른다.

물론 아직은 춥다. 영하를 밑도는 마지막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아웃도어 업체들은 간절기용 경량 재킷 신제품을 대거 쏟아내며 일찌감치 봄맞이에 나섰다. '봄 재킷'은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착각한 겨울 티를 벗고 산뜻한 봄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디자인이 더해지면 금상첨화다.

●스트레치 소재 사용으로 팔이 편해졌다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는 하이브리드형 경량 다운인 '스포트라이트 다운'을 출시했다. 다운 재킷 특유의 단단한 착용감을 개선한 제품이다. 움직임이 많은 소매 안쪽에서 허리까지 이어지는 부위에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해 어떤 동작을 취해도 움직임이 편하다.

코오롱스포츠는 시티웨어를 선보이는 K+에서 '튜브 경량 다운점퍼'를 선보였다. 이번 겨울 완판행진을 기록한 '튜브 롱 다운'의 간절기 버전이다. 퀴팅 부분에 봉제선이 없어 부드럽고 착용감이 우수하다. 디자인이 베이직해 다양한 믹스매치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블랙아크는 봄패딩 2종을 내놨다. 자체 개발소재인 야크패딩(천연 야크모)을 퀴팅 형태로 적용해 쌀쌀한 봄 날씨에 적당한 경량패딩이다. 포근한 날씨에는 아우터 단독으로, 풋샘 추위 방지 기능을 부리는 날에는 이너 형태로 레이어드해 입으면 된다. 대표제품은 'B원터재킷'. 앞판 부분의 경우 사선형태의 퀴팅으로 야크모를 적용해 스타일과 보온성을 동시에 잡

았다.

남성용으로 선보인 '세인트재킷'은 부드러운 무광소재에 야크모를 따름모 퀴팅으로 적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봄철 출퇴근, 일상 외출용으로 제격이다. 재킷으로도, 셔츠로도 입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이다.

●수트와 잘 어울리는 베스트, 워밍 비즈룩에 '딱'

미국 포틀랜드에서 시작된 서스테이너블 라이프웨어 나누는 간절기 아이템인 '패딩 베스트 컬렉션'을 선보였다. 추울 때는 아우터 위에 걸쳐 입고, 따뜻한 날이나 실내에서는 단품으로 입을 수 있어 실용적인 아이템이다. 정장 스타일과 캐주얼 스타일 두 가지로 출시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

대표제품인 'M 울트라 다운베스트'는 수트 형태의 제품으로, 테일러드 칼라 디테일과 3버튼 디자인으로 포멀한 수트와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무광의 원단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수트 팬츠와 매치하면 사무실에서도 격식과 보온성을 모두 갖춘 워밍 비즈룩을 연출할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브랜드 센터폴은 간절기에 입기 좋은 'CPX 하이브리드 패딩재킷'을 출시했다. 스포터즘을 반영한 크로스오버 라인인 'CPX'의 신제품이다. 가볍고 보온성이 우수한 신슬레이트 패딩 충전재를 사용하고 신축성 있는 파워 스트레치 소재를 접목한 하이브리드형 패딩재킷이다.

패션그룹 형지의 스위스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와일드르즈도 두 가지 스타일의 간절기용 경량 패딩재킷을 선보였다. 슷 경량 패딩재킷은 변형 퀴팅구조와 제품 허리부분 스트레치 소재를 통해 편안한 착용감을 살렸다.

친환경 발열소재 '솔라볼'을 활용한 롱 패딩 스타일의 재킷은 슬림한 라인을 돋보이게 하는 허리부분 입체 퀴팅선이 특징이다. 힘을 댄 기장감으로 보온성이 뛰어나다. 특히 코트 스타일의 목깃 디자인과 솔리드한 퀴팅 라인을 통해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블랙아크 '세인트재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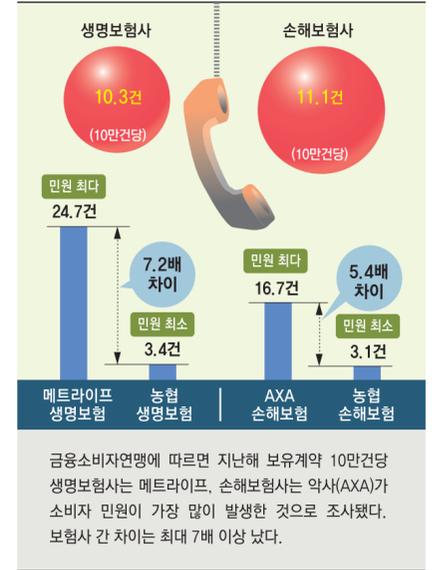


▲와일드르즈 간절기용 경량패딩



▲밀레 '스포트라이트 다운'

데이터로 보는 경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보험사는?



파타고니아 '라이트웨이트 블랙홀' 가볍고 튼튼



친환경 아웃도어 스포츠브랜드 파타고니아코리아가 봄·여름시즌을 맞아 가볍고 튼튼한 소재로 활동성을 높인 가방 제품 '라이트웨이트 블랙홀 시리즈'를 선보인다. 가볍고 질긴 나일론 립스탑 원단을 사용한 초경량 제품으로, 무게를 최소화하면서도 튼튼한 내구성과 수납력, 편안한 착용감 등의 기능을 갖춰 기존 블랙홀 시리즈의 강점을 그대로 구현했다. TPU 필름 코팅처리로 물에 젖거나 비우, 모서리에 긁혀도 짐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며 구멍감과 압축성이 좋아 내부 포켓이나 배낭에 집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휴대·보관할 수 있다. 가방 내부의 기본적인 수납공간 외에도 의류나 캠핑·등산용품을 손쉽게 걸 수 있는 데이지 체인이 부착돼 안전장비가 필요한 아웃도어 환경에 활용하기 좋다. 백팩과 토트, 더플 스타일로 총 5가지 제품을 내놨다. 메인 아이템인 '라이트웨이트 블랙홀 신저 팩 20L'은 입구에 있는 끈이 달린 백팩 스타일로 부피가 큰 짐과 장비도 손쉽게 답을 수 있다.

양형모 기자

K2가 360도 완벽한 핏감으로 착각 없이 뛰어난 트레킹화 '서라운드 메가핏'



K2가 360도 완벽한 핏감으로 착각 없이 뛰어난 트레킹화 '서라운드 메가핏(27만9000원)'을 출시했다. 스마트핏 기술을 적용해 내 발 모양에 꼭 맞춘 듯한 양쪽 측면 구조물과 신발 끈이 발등부터 발뒤꿈치까지 감싸줘 산행시 최상의 착화감을 선사한다. 360도 전 방향 방수와 투습기능을 갖춘 고어텍스 서라운드 소재를 사용해 날씨와 환경변화에 강하다. 별도의 끈 없이 다이얼로 와이어를 죄고 풀 수 있는 보아시스템을 장착했다. 기존의 파일론보다 반발탄성을 30% 이상 향상시킨 예너지 무브먼트 셀을 미드솔 앞뒤에 적용해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발 뒤꿈치를 잡아주어 발목을 보호하는 밸런스컨트롤시스템 설계로 안전한 산행을 돕는다. 항균·항취기능이 뛰어난 퀴텍스 소재를 사용했다.

양형모 기자

LG유플러스 자동이체 요금할인 제휴카드



LG유플러스는 유무선 통신요금 자동이체 신청 후 금액 상관없이 매일 한 건 이상의 결제 이력만 있으면 통신요금 할인 받을 수 있는 '하나멤버스 1Q 리빙 카드'·'위비할인 우리카드'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하나카드의 LG유플러스 고객용 하나멤버스 1Q 리빙 카드는 LG유플러스의 유무선 서비스 통신요금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고, 비용 관계 없이 전월 결제 이력이 한 건만 있으면 다음 달 요금에서 5000원이 할인 청구된다. 위비할인 우리카드 역시 같은 조건으로 통신요금 5000원 청구할인이 24개월간 제공돼, 최대 12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병근 기자

SKT 'T인증' 가입자 500만 돌파

SK텔레콤은 본인확인 서비스 'T인증'의 가입자가 출시 6개월 만에 500만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누적 인증건수도 3869만건을 돌파했다. T인증은 성명과 전화번호 입력 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6자리 PIN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다. 최초 1회에 한해 T인증 애플리케이션에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PIN 번호를 등록하면 이후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하거나 특정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다.

김병근 기자

뉴스디자인 | 신하늬 기자

게임업계 트렌드 IP 확장 "경쟁 아닌 전쟁"

(지적재산권)

넷마블, IP 조직 확대개편 사업강화 컴투스, 액티비전과 IP게임 개발계약 웹툰 등 유명 IP활용 게임제작 활발



게임업계의 '지적재산권(IP) 대전이 더욱 본격화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과 '포켓몬 고'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 업체들이 유명 IP 기반 게임 준비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여기에 보유 IP를 다른 플랫폼의 게임이나 캐릭터 사업 등으로 확장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투자와 계약 등 업계의 합종연횡도 이뤄지고 있다.

올해 새롭게 등장한 인기 게임의 공통점은 유명 IP 기반이라는 점이다. 인기PC온라인게임 '리니지2'를 기반으로 한 리니지2 레볼루션과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 포켓몬을 소재로 한 포켓몬고가 대표적인 예다. 주요 게임사들이 올해 키워드 중 하나를 'IP 확장'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시장 트렌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엔씨소프트 '리니지M'

먼저 관련 조직을 신설하며 사업 강화에 나선 업체들이 있다. 넷마블게임즈는 IP를 관리하는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신사업 총괄은 김홍규 부사장이 맡았다. 캐릭터 유통 사업 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컴투스도 게임 IP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전담 조직인 'IP전략실'을 신설하고 전문 인사를 영입했다. 우선 '서머너즈 워'를 활용해 만화, 애니메이션, 소설, 영화, 머천다이징 등으로 확장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리진' 후속편의 중국 퍼블리싱 계약 소식을 전하며 올해 첫 IP제휴 사업을 알렸다.

자사의 보유 IP를 확장하거나, 웹툰 등 유명 IP를 활용한 게임 제작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과 '아이온 레기온즈' 등을 개발하고 있다. 넷마블게임즈도 '지아이즈'와 '세븐나이츠' 등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게임을 준비 중이다. 넥슨도 '테일즈런너'와 '메이플스토리' 등의 IP 기반 게임 제작에 나섰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웹툰 '노블레스'의 IP를 활용한 게임을 1분기 내 서비스 할 예정이다. 와이디온라인도 '외모지상주의' 등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게임을 제작하고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 IP를 활용한 '프로젝트B'도 추진 중이다. 그 밖에도 컴투스가 서머너즈 워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개발 중이며, 게임빌은 '아기애지 비긴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네시삼십삼분은 'DC프로젝트' 등을, 펠어비스는 '검은사막'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게임을 준비하고 있다.

김병근 기자 dionys@donga.com